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소규모 제조업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한 업종에 특화 지원하고, 청년자산형성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.

1. 관련 기사

- 5.23.(화) 뉴스1, “1200만원 받는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 올해 가입자 20분의 1토막”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,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'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
 - '23년은 인력 부족업종인 제조업·건설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‘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’ 목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
- 한편, '23년에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(금융위, 6월 출시 예정)를 신설했으며, 청년내일저축계좌(복지부, 5월 출시)와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을 허용
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병성 (044-202-74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희 (044-202-7716)